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ITF 항공분과의 행동 요구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 항공산업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항공산업 혼자서는 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항공산업의 미래와 수백만 승객과 항공 노동자의 삶을 규정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항공산업은 전 세계에서 직접적으로 약 1,02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 광범위한 공급 사슬과 항공부문 서비스 및 연관 산업은 6,550만 개의 일자리에 달한다.

항공 수송력(Flight capacity)은 이미 40% 이상 하락했다. 3개월의 규제 후 2020년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회복한다고 했을 때 항공사들은 2019년 승객 수입에서 44% 하락한 2,520억 달러의 희생을 치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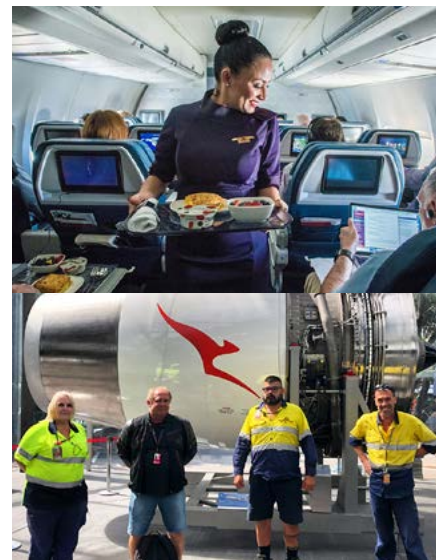
이 위기는 수십년 간 항공 산업을 망쳐온 수많은 문제에 기인한다. 즉,

- 저가 항공의 공급 과잉
- 탈규제와 합병
- 하청화와 노동의 파편화
- 주주 배당과 임원 임금의 우선시
- 임금과 노동조건, 보건안전 악화

항공 부문은 경제의 심장이며 팬데믹에서의 사회적 회복의 중심일 것이다. 유일하게 진정한 지구적 운송 시스템으로서 경제의 전 분야와 세계 교역의 여러 측면을 움직인다. 항공 공급 사슬에서 일하는 수백만의 노동자들은 복귀 요구에 부합하도록 직장으로 재빠르게 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후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현재의 항공 분야의 일자리를 유지, 보호하고 확장해야 한다.

항공 부문은 장기 계획에 의존한다. 추가적인 수송력이 실현되기 오래 전부터 조종사와 승무원 및 모든 노동자들이 훈련을 받고, 항공기들이 업그레이드되고, 기반 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 현재를 만든 결정과 의지들은 지나치게 야심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적절하고 기능적이며 필요한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번 위기 시기 동안 적절한 투자와 재정적인 산업 안정 보장의 실패는 위기 이후에 뒤따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싸움 역시 위험에 빠뜨린다. 새로운 비행단은 탄소 배출을 40% 줄일 수 있다. 항공 산업의 미래와 오늘날 우리의 기후에서 활력을 줄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후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현재의 항공 분야의 일자리를 유지, 보호하고 확장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밀접한 협력 속에서 건설된 정부의 리더십이 이번 도전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다. **ITF는 다음 사항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

1. 항공 부문을 강력한 정부의 규제와 감독, 기획, 투자, 필요한 경우 공적 소유가 필요한 공공재로 인정.
2. '여행 금지'는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어떤 여행 제한에서도 항공 화물 작업은 제외하여 최소 수준의 운송 연결성(transport connectivity)을 수립·시행.
3. 전략과 협력적 투자, 재정적 대응을 발전시키고, 노동력 공급을 계획하고, 모든 항공 업무를 감독하기 위해 항공 산업의 국가 노사정 대표 체계를 수립.
4. 고용 상태와 무관하게 전형, 비정규, 비전형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즉각적으로 병가 휴가의 연장, 수입 보전, 사회적 보호 확대.
5. 공항 서비스와 일자리의 하청과 외주화를 축소하고, 적절하고 권한 있는 공항 기구가 지상조업, 보안, 청소 등의 모든 공항 서비스에서 외주와 파견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공항 직원을 직접 관리, 혹은 직접 고용.
6. 공공 자산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공적 소유 수준이 더 높은 항공사들이 우선적으로 공항 사용.
7. 항공사, 공항 공사, 공급사슬 기업들에 채무 면제, 세금과 관세 유예, 주식의 공적 매입 등을 포함한 조건부의 재정 지원과 패키지 지원책 제공.
8. 항공 산업의 회복 이후 주식을 민간에서 매입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재정 지원 패키지의 조건들(그것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에 합의:
 - 모든 항공 노동자의 임금, 계약조건, 노동조건, 복지 수준의 보호.
 - 자사주매입, 주주 배당, 과도한 임원 급여 금지.
 -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 소유와 운영의 민주화.
 -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차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직업 건강과 안전에 관한 ILO 협약 준수.
9. 부채 감소, 비행단 현대화, 직원의 교육·훈련을 비롯해 회사를 증진시킬 여타 수단에 대한 재투자를 보장하기 위한 이윤 수준의 제한.
10. 위기 시기 동안 주주 배당, 과도한 임원 급여, 자사주 매입의 금지.

ITF는 다음을 위해 항공산업의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1. 노동자의 보건, 권리, 복지 위협을 확인하고, 작업장 대응을 개발·시행.
2. 모든 노동자와 코로나19의 결과로서 모든 형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의학적 검사, 시술, 훈련, 훈련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제공.
3. 코로나19의 위험이 있거나 감염된 모든 노동자에게 병가 수당이나 휴업 수당의 형태로, 휴가 첫날부터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상호 합의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급여를 보존.
4. 해당 사업과 공급 사슬의 모든 노동자를 관리할 의무를 인식하고 시행하며, 가능한 한 정형적이고 직접적인 고용을 제공하며, 직접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의 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보장.
5. 노동자와 승객의 보건,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공급사슬에서 비정규, 비전형 형태의 노동 종식.
6. 일자리와 노동자의 보건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스케줄, 노동일, 노동시간을 개선.
7.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감소함에 따른 지속가능한 주주 배당률, 배당금, 임원 급여의 합의.
8. 지역적, 혹은 국가적 봉쇄 조치들이 재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기 어렵게 만들더라도 모든 노동자들이 평소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
9. 코로나19 위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의학적 및 여타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점검하고, 회사의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노동조합과 공유.
10.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강제노동, 차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직업 건강과 안전에 관한 ILO 협약 준수.

정부와 사용자는 또한 위기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도모하고,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한 산업적 준비를 위한 적절한 기구로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ITF와 노동조합들과 협의해야 한다.

